공군 제3훈련비행단 15만시간 무사고 비행

국산 훈련기 KT-1도 95시간 보태

공군은 지난 1월 9일 김석우 교육사령관을 비롯한 각군 지휘관과 참모, 조종학생, 관계 장병이 참석한 가운데 제3훈련비행단에서 15만시간 무사고 비행에 대한 시상식을 가졌다.

이억수 공군참모총장은 교육사령관이 대독한 훈시를 통해 "제3훈련비행단의 비행안전 시상식으로 새해를 열게 되어 기대가 크다"고 밝히고 "제3훈련비행단이 공군의 비행안전을 선도한다는 자부심과 사명감을 갖고, 더 높은 비행안전 기록을 수립할 수 있도록 총화적인 안전관리에 최선의 노력과 정성을 기울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이번 15만시간 무사고 비행은 조종경험이 적은 새내기 조종사들의 단독비행과 다수의 훈련기들의 동시 비행 등이 합산된 기록이어서 그 의미가 더욱 크다.

특히 최근에 양산된 최초의 국산 훈련기인 KT-1('00. 11. 3 출고식)도 94시간 52분의 시간을 보태 그 의의가 더욱 크다고 할 수 있다. 앞으로 본격적인 국산훈련기 시대를 맞이하면 KT-1만으로 이루어진 기록이 수립되어 국산 항공기술의 우수성을 전세계에 알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번 대기록 수립의 성과는 공군이 훈련조종사들의 비행학술 연구활동을 다각도로 지원하는 한편 비행계획 단계에서부터 작전업무 수행에 이르기까지 모든 업무를 전산화하여 신속성과 정확성을 이용한 효율적이고 과학적인 비행안전 여건을 조성한 결과로서, 조종학생들의 비행교육 내실화를 위해 교관과 조종학생들이 비행훈련 전후에 상호 격의없는 대화를 나누는 등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교육

방법의 도입도 큰 몫을 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에 수립된 무사고 비행을 거리로 환산하면 약 7천 1백만km로 서울과 부산(426.5km)을 약 83,235회 왕복한 것에 해당한다(약 38만km 거리인 지구와 달 사이를 98회 왕복, 46,250km인 지구의 둘레를 15,035회 주행한 거리임).

한편, 제3훈련비행단 예하 제236비행교육대대도 8만시간 무사고 비행기록을 수립,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일반적으로 세계 공군에 있어 무사고 비행기록은 9천시간을 단위로 기록수립에 의미를 두는 것이 통례이다.

9천시간은 항공기 사고율 평균시간, 즉 항공기 평균 20대를 운용하는 비행대대에서 약 9천시간에 1대꼴로 사고가 나는 전세계 공군의 평균치(주로 미국)를 기준으로 삼은 것이다.

이러한 기준에 따라 각국 공군은 1만8천시간, 2만7천시간 등으로 기록부여에 대단한 의미를 부여하지만 실제로 5만시간 이상의 비행기록은 매우 드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날 시상식에서 공군 제3훈련비행단은 참모총장 부대표창을, 비행전대 작전과 이정운 소령, 213대대 이대옥 대위, 부대정비대대 임상호 대위가 참모총장 개인표창을 각각 수상했다.

참모총장 표창을 수여받은 이정운 소령은 "사고는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지만 늘 대비하는 마음과 노력이 있다면 사고는 막을 수 있다"며 "임무와 안전은 동떨어진 것이 아닌 만큼 안전을 고려한 비행임무의 지속적 수행에 더욱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피력했다.

미국 도입 구축함과 고속전투수송함 전역

21세기는 국산 첨단전투함으로 해양 국익 보호

지난해 12월 29일 진해 군항부두에서는 2척의 구축함(DD, Destroyer)과 1척의 고속전투수송함(APD, high Speed Transportation)의 명예로운 전역신고가 있었다.

이 3척의 전역 신고를 마지막으로 우리 바다 위에서 3,000톤급 구축함을 비롯한 미국産 전투함은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되었다.

이날 해군 군악대의 장엄한 연주속에 짧게는 22년 4개월(강원함), 길게는 41년 2개월(경남함)을 달고 있었던 취역기를 내림으로 퇴역하는 함정은 구축함 광주(DD-921), 강원함(DD-922)과 초계함급으로 고속전투수송함 임무를 수행한 경남함(APD-822)이다.

광주함은 1945년 미국에서 건조되어 1976년까지 美 해군에서 활동하다 퇴역하였으며, 1977년 한국 해군에 도입된 후 23년 9개월을 활약했고, 美 해군 등과 연합 해상작전 훈련 20여회 참가, 해사 35기(1980년)·38기(1983년) 순항훈련에 참가하여 원양항해 능력을 과시했고, 군사외교를 통한 국위를 선양하였으며 구축함의 임무중 가장 어렵다는 구소련 잠수함(1983년)·중국 잠수함(1988년) 접촉 및 추적 등 잠수함 작전에 성공하기도 했다.

강원함은 1944년 미국에서 건조되어 1951년 1월부터 6월까지 한국전쟁에 6개월간 참전 하기도 했는데, 1978년에야 한국 해군에 인도되어 22년 4개월을 활약하며 간첩선 모선 1척 격침(1983. 8. 13 독도외곽 구역), 해사 35기(1980년)·37(1982년)·40기(1985년) 순항훈련 참가, 15년간 동해 함대 헬기탑재 구축함으로 기함역할을 훌륭히 수행하고 이날 명예롭게 전역하게 되었다.

강원함은 전역 후 올해 6월경 진해시가 추진중인 군함 박물관으로 무상대여 전시될 예정이다.

경남함은 1945년 건조, 비교적 일찍인 1959년에 도입되어 당시 제일 크고, 신식인 군함으로 이승만·윤보선·박정희 대통령 등 주요 귀빈을 이송하는 임무를 수행하기도

했으며, 도입직후인 1960년에는 한국전쟁 중 미국에 피난시킨 국보 40여상자를 무사히 귀국시키는 임무도 성공적으로 완수했다. 특히 동서남해에서 간첩선을 3척이나 잡는 성과도 올렸다. 한국 해군에서만 41년간 활동하다 이날 2척의 구축함과 함께 전역하게 되었다.

전역하는 구축함들은 길이 123미터에 250여명의 장병이 승조하며, 최대 25노트(시속 약 45킬로미터)의 속력을 낼 수 있었다.

5인치 쌍발 함포가 2문이 있고, 한국 해군에 도입되면서 80년대 이후 하푼 함대함 미사일을 8문씩, 잠수함용 어뢰를 6문씩 탑재하여 구축함으로서의 강한 화력을 자랑하였다.

특히 한국 해군에 인수된 이후 말끔히 단장된 모습으로 해군순항훈련분대의 기함(旗艦)으로 1980년대 중반까지 활약하여 한국 해군의 군함정비 능력과 관리수준이 세계적이라는 찬사를 받으며, 美 해군을 비롯한 세계 해군을 놀라게 하기도 했다.

이들 구축함은 도입된 후 해군 관습에 따라 국토를 대신하는 국제법적 군함의 지위를 상징하는 국내 대도시나 道名 등을 붙여 "서울", "부산", "강원", "경기", "충북", "대전", "광주" 등으로 불리워 왔다.

이날 명예로운 전역신고를 한 구형 구축함은 미국 해군에서 퇴역한 군함을 1963년부터 1978년까지 모두 12척을 우리 해군에서 도입, 다시 취역시켜 활용한 군함들로 모두 50년 이상된 고령의 함정들이며, 10척이 지난해까지 퇴역하고, 나머지 2척이 전역함으로 일부는 영구히 모습을 감추고, 3척은 강릉, 삽교호, 진해 등지에서 영구히 보존된다.

해군은 이들 구축함을 전시관, 함상박물관 등으로 재활용하려는 자치단체들의 요청에 따라 무상으로 대여하여 영구 전시되도록 돕고 있다.

해군은 21세기부터 국내에서 국내기술진에 의해 설계 및 건조된 國産 전투함정으로 우리의 영해와 해상교통로(SLOC : Sea Lane of Communication) 등 해양국익을 지키는 새 역사를 기록하게 될 것이다.

해군은 지난 70년대부터 자주국방의 기치 아래 전투함정의 국산화에 힘쓴 결과, '80년부터는 호위함(1,500톤급, FF : Frigate), '82년부터는 초계함(1,200톤급, PCC : Patrol Combat Corvette), 1998년부터는 3,000톤급 국산 구축함(3,820톤, DD : Destryer)을 국내에서 우리 기술진이 설계 및 건조하여 해양수호에 투입하고 있다.

해군은 또, 1992년부터는 잠수함 시대를 열었고, 작전능력이 보다 향상된 차기잠수함 사업을 거쳐, 3,000톤급 중형잠수함을 독자 개발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으며, 2008년경 꿈의 구축함으로 불리는 이지스급 구축함(7,000톤급)도 갖출 계획이다.

해군은 이번 구형 구축함 퇴역을 계기로 대양해군으로의 진입을 위한 전환점이라는 의미를 부여하는 한편, 21세기에는 첨단무기체계를 갖춘 국산 전투함정으로 해양에서의 국익을 보호하고, 국가번영을 힘으로 뒷받침하는 대한민국의 핵심전력으로서의 사명완수에 더욱 매진할 것이라고 밝혔다.